

부활 제 4 주일

기도서 291 면

제 1 독서 : 사 도 4, 8-12

제 2 독서 : 요 한 1서 3, 1-2

복 음 : 요 한 10, 11-18

숲 정 이

| | |
|----|---------|
| 발행 | 천주교전주교구 |
| 편집 | 사 목 국 |
| 인쇄 | 관 리 국 |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강론



부르심에 용기를!

서 석 구 신부

이 세상에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많습니다. 눈앞에서 그 순간부터 자기가 원하던 원하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길을 걸어도, 차를 타도, 방에 앉아도 피할 수 없는 소리를 듣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들 중에 자기를 가리켜 부르는 소리가 있다면 더욱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고 많은 부름 중에 자기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하루가 피곤하고 웬지 모르게 서글퍼지는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가 있으니 그분께 한번 응답해 봅시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주님의 뜻에 의하여 당신 모습대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초대된 것입니다. 비록 인종과 국가, 직업, 성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할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 사명이 막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말씀하시기를 "은 몸에 모든 지체가 필요하듯이 모든 개인이 다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제나 수도자의 부름은 그 응답이 더욱 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다운 사제나 수도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한 목자입니다.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요한 10, 11). 얼마나 그리스도다운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몸소 실천하시어 우리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당신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초대된 것은 우리 개인이 잘났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느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요한 4, 19), 그 부르심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신자 여러분! 착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착한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베가 오면 도망쳐 버린다고 했습니다. 불림을 받은 우리는 착군이 아니고 양의 주인이며, 또한 바로 우리가 그분의 양들입니다. 양과 목자는 한 가족입니다. 양떼없는 목자가 있을 수 없으며 목자없는 양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잘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잘 압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게는 이 우리안에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 양들을 데려다가 돌보아 주어야 하겠습니다"(요한 10, 14-16).
주님의 간곡하신 이 부르심에 응기있는 응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착한 목자 되셨듯이 주님 뒤를 따라 아직 우리에게 들지 않은 양들을 위해 돌보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합월본당 주임신부>



이 시대의 문제들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다. 그들의 죽음은 적군의 총알에 의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이 대역무도한 죄를 저어셔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어쨌든 무고한 양민들이 바명에 죽어갔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살아있는 우리는 우선 한 맺혀 방황하고 있는 응어리진 그들의 명복을 빌어야 한다. 「주여!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참으로 어안이 병병할 따름이다. 경상남도 의령은 우리의 땅이 아니었는가. 아니면 그들은 우리의 동포가 아니란 말인가. 여섯 시간이든 여덟 시간이든간에 그간의 치안공백(治安空白)을 누가 무슨 염치로 변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만일 그 시간에 무장공비라도 날뛰었다면 어찌되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싯점에서 범인의 성격을 따지기 보다는 치안의 헛점을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신랄한 국민들은 그래도 정부를 믿으며 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든지 있어야 할 그들이, 왜 그곳에는 그리도 더디게 왔는가를 우리는 묻는 것이다.

유감의 뜻이라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유감(遺憾)이라 함은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퍼 섭섭함"이나 "맛갈잖아 언짢게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다. 적어도 국민의 수임자라면 무조건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책임지고 물러나는 길이 최선은 아니라고 강변할지 몰라도, 책임지는 풍토는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위에서부터.

언제부터 이 땅에 그리도 총소리가 높았는가. 총이 이 시대의 신이란 말인가. 차체에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원점부터 풀어 보자. 그리하여 빨리 모든 상처들을 아물게 하자. 이 일이 원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숲 정 이 산책



최신부 개인 문제가 아니다

성소 계발을 위한 기도

성소(聖召)주일을 맞아 교황성하께서는 전세계 주교, 사제, 수도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신학생들과 수도 지원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간구하시며 사도적 축복을 보내셨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 공동체와 신자들 개개인이 성소계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도록 촉구하시면서 반성과 권고를 따치고 다음의 기도를 요청하셨다. 모두 일치하는 마음으로 바쳐주시기 바란다.

『착한 목자이신 주 예수여, 당신은 모든 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나이다. 세계 도처에 있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로 하여금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풍요로운 생명을 주소서.

주 예수여, 그리스도인 가정에 당신의 풍요로운 생명을 주시어, 모든 가정이 교회에 대한 봉사과 신앙으로 더욱 불타오르게 하시며, 새로운 성소계발에 열의를 갖게 하소서.

주 예수여, 당신의 봉사자로 부름받은 모든이들, 특히 젊은 남녀들에게 당신의 풍요로운 생명을 주소서.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시어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도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열정과 용기를 주소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메시지에서〉

신부(神父)란 누구인가?

김 요 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니 시로다!”(요한 1, 29)

이는 우리의 영원한 대 사제(司祭)이신 주 그리스도를 우러러 찬미하는 송구(頌句)요 신앙고백이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집트의 노예생활(죽음)에서 해방시키던 장렬한 출애굽(Exodus)의 날, 그 「빠스카」(逾越, 구원)의 희생제물이 됐던 어린 양(羊)처럼, 온 인류의 구원(죄에서 해방)을 위해 십자가 형틀에 당신 자신을 속죄(贖罪)의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대 사제로서의 숭고한 표양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요즘 한동안 신문에 대문짝같이 오르내리던 신부(神父)란 그럼 어떤 존재들일까? 그건 두 말할 나위 없이, 바로 이 땅에 저 그리스도처럼 또 하나의 속죄 양 되어 죄인 위해 바쳐지는 봉헌이요, 오늘의 희생(犧牲)인 제2의 사제(司祭)들이다.

그들의 삶은 오직 주주성명(遵主聖範) 뿐, 언제나 그리스도를 모델로 그 길을 가고 그 생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삶을 지향하는 지순(至純)의 삶으로 엮여지지 않으면 안 될 「작은 그리스도들」인 것이다.

따라서 신부들에게, 주님처럼 만민에 생명주고 평화줄 구원의 3대사명, 그를 지고 끌고타까지 죽도록 가야 할 무거운 과업이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에 입각한 「시대의 예언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일깨워야 하는 사명, 곧 진짜 「의식계발의 기수」가 되는 일이다. 둘째는 죽기까지 순명하며 아버지의 뜻을 좇은 주님따라 이 세상에 그 뜻이 이뤄지고 그 나라가 임하도록 철저히 「인간 위해 봉사」하는 「인권과 복지사회 건설의 역군」 선구자 구실을 하는 일이다. 그리고,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같이 죄인 위한 기도와 성사(聖事)에 몸담는 「사제」로서 모든이의 고통과 상처를 달래주고 씻어주는 세상 양심의 수호자, 바로 「죄인의 의탁」이요 피난처가 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부란 육체없는 영혼(정신)만이 아닌 현재 인간의 전인적(全人的) 구원을 위해 「모든이에 모든것」(I 고린토 9, 22)이 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자(使者)요 작은 사도(使徒)로 불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결코 현실을 외면한 영계(靈界)나 내세(來世)만의 주술사(呪術師)일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제이다. 백성(국가·농정부)없는 종교를 생각할 수 없듯, 교회의 신부는 마땅히 그 백성의 삶(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속에서 언제나 함께 복음을 심고 삶을 같이 해 가는 민생(民生)의 신부(Father, 아버지)이어야지 귀신(神)애비(父)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린 기대한다. 오늘의 천주교 신부들이 이 시대 이 나라에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위한 참 양심수인이요 순교자, 「빠스카 고양(羔羊)」이신 주 그리스도의 보 다 철저한 제자 되기만을.

(성소 지도신부, 사목국장)

□ 사제 지망생을 위한

신학교 견학 연수 안내(모집)

성소 계발과 육성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요 모두의 중대한 본분입니다. 금번 교구에서는 각 본당 모범 학생을 선발, 다음과 같이 **광주 대건 신학대학**을 견학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뜻깊고 보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예정 : 신학교 견학, 미사, 특강 및 교수님, 부제님들과의 특별좌담
2. 행사일시 : 5월 16일(승천주일) 9시 전주 가톨릭 센터에 집결 출발(오후 6시 산회 예정)
3. 참가대상 : 성소에 관심있는 고등학생(남자). 참가인원 제한 없음
4. 협조사항 : 교통비(버스대절), 식대 등 일체 교구지원(학부모 동행도 환영함, 사전 신청 요)
5. 참가신청 : 5월 8일까지 각 본당신부님을 통해 교구에 신청 바람.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주님의 전당이 이루어짐을 감사드리며 (5월중 준공예정), 다음 성물과 비품을 봉헌 하실 분을 찾습니다.

제대 40만원 독서대 1조당 15만원(2조) 마이크 시설 50만원 성광 45만원 예절의자 1조당 7만원(3조) 제의장 및 비품 30만원 성수대 10만원 성당의자 1조당 8만원 (4조) 주수장 6만원 제대 S 클리스 1조당 35만원 (4군)

연락처 52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③ 3201
550-17 김계군 금산면 원평리 1-4
원평 천주교회 (원평 7번)원평성당 주임신부

□금·은·보석·시계는
남문열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열(대지여관 입구)
전화 ④4989 ⑥4988

*커피專門店

준 Coffee

전진천화국앞, 임금님다방 2층
☎ ⑤ 5 0 1 1



□ 본당 식목행사를 보고

“우리 산은 우리가 가꾼다”는 생각으로 지난주간 고산 본당(주임 전대복 신부) 소속 전주군 비봉면 대치리 산 106번지 일대의 5정보에 식목행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아침 7시 30분 본당에 집결한 본당 신자 80여명은 본당 신부와 수녀를 선두로 작업복 차림에 삽과 쟁이를 들고 산수 공소행 버스를 탔다. 가파른 산에 나무를 심으러 가는 신자들의 얼굴 표정은 한결같이 밝아보였다.

13일동안 계속 교회 산에 나무를 심는 공소 신자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본당 신자들이 자원하여 삽과 쟁이를 들은 것이다. 본당 신자들과 공소 신자들이 함께 어울려 나무를 심고 음식을 나누는 광경은 단순한 식목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한 형제임을 실감케 했으며, 오랜만에 시골 공소에 경사가 났던 것이다.

이번 식목행사는 본당 신자들과 공소 신자들간에 친교의 뜻깊은 행사였으며, 우리 교회의 좋은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공모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을 기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는 200주년 주제, 기념노래, 심볼마크, 포스터를 모집합니다. 80년 7·8월에 실시된 1차 모집에 이어 갖게 되는 이번 공모에 전국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내용 □ 제2차 모집

- ① 주제(슬로건) ② 심볼마크 ③ 기념노래 가사 ※ 200주 기도문, 표어참조
- 제2차 모집마감: 82년 5월 10일
- 당선작 발표: 82년 5월 주교회의 기간중(24~28)

□ 제3차 모집

- ① 200주 포스타 ② 기념노래 작곡 ※ 기도문, 표어, 주제, 기념노래, 심볼마크 참조
- 제3차 모집마감: 82년 5월 이후 발표
- 참가자격: 국내의 성직, 수도자, 평신도
- 실 사: 각 분야 전문위원
- 응모요령: 일반 응모요령에 준하며 응모된 내용은 반환치 않음
- 보 낼 곳: 우편번호 100,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16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가톨릭 신문사

□ 가톨릭 교리 및 성서강좌 개강

1. 예비신자 교리(지성인) 강좌

- ① 개강일시: 5월 9일(주일) 오전 10시(가톨릭 센터)
- ② 신청접수: 가톨릭센터 교육부(전화 ④0041~2)에 미리 신청, 서류 제출 바람 (신청서 양식 각 본당에 비치)

2. 성서강좌 개강

- ① 베델성서(제3기)
 - 가) 개강일시: 5월 10일(월) 오후 7시30분(주1회 1년)
 - 나) 장 소: 가톨릭 센터(법 석규 신부 지도)
- ② 베소라 성서(제1기)
 - 가) 개강일시: 5월 11일(화) 오후 7시30분(주1회 6개월)
 - 나) 장 소: 가톨릭 센터(김 정원 신부 지도)
 - 다) 신청마감: 5월 10일까지(수강료 월 1,000원)

요심이 (456) 김병오



상당수준의 교칙본(체르니, 쓰나타) 소화자에게 악보없는 시도 반주해낼 수 있는 세미 크라식 반주법의 희소식

페즈·크라식

피아노 반주법

각 본당 전자올겐 구입시 상담 및 협조해 드립니다.

성악: 을대 지망자나 가요계 지망자
전화 ④ 3770

이일규(알로이시오)

※ 구 역전과 전고중간 사거리 전복은행 노송동지점 앞

'생활·각종화분·신부부케

팔마꽃집

팔마성당 앞
전화 ④ 5074

이나라시아(음식)

제일모직 VIP 직매점

(구) 현대라사

각 메이커 순모·훈발 다량 구비
주. 양영욱·장현우(바오로) 전화 ④4520 ④3620

전복신문
전일여관 백제화랑

제일모직 직매점

명보
제과



의료효과의 선구자
神秘食品 土龍

聖(베네딕도) 수도원 제조
토롱한, 정제, 액기스, 초밀란
사무실: 전주, 구 성모병원 3층 (309호)

전화 6-5587 김 미카엘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5월은 성모성월 : 세상의 평화를 위해 성모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 장례 예절교육(애령활동을 위한 연수회) : 일시-5월 9일(일) 10시~16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애령활동에 관심있는 분, 회비-2,000원, 지참물-성경예규·공동체 성가집
- 여성 13차 꾸르실료 동창회 : 일시-5월 2일 오전 10시, 장소-가톨릭 센터 3층
- 로사리오(공무원) 모임 : 5월 9일 오전 10시, 전주 실내체육관, 회비-전주지구(2,000원)·기타(1,000원)
-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일시-5월 3일 오후 7시, 장소-가톨릭 센터
- 3지구 교리교사 연수회 : 일시-5월 8일 오후 2시, 장소-이리 주현동 천주교회
- 축! 영명-성민호·김동준(야고버)·박병준(필립보) 신부님 : 5월 3일, 기도중에 기억합니다

(중양)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관문
사도 회장 박관문

- 성경읽기 : 사도행전 11장~13장, 요한복음 10~14장
- 중앙성당 25주년기념 성전건립, 우리 모두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한마음이 되어 성전이 완성되도록 모든 것을 힘껏 봉헌합니다
※ 82. 1. 10부터 기도 시작, 82. 4. 25부터 신축기금 모금, 82. 4. 25 본설계, 82. 6. 18 기공 예정일 유인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도회 상임위원회 : 8일 오후 7시 본당신부 사무실
- 성심부녀회 : 7일(금) 어머니미사 후, 회합실
- 주일학교 성지순례 : 5일(수) 사후 양화진성당 본당집합 오전 6시30분, 출발 오전 7시
- 병자발문 : 병자를 모시고 계시는분은 사무실에 신청
- 병자반 교리시간 : 매주 일요일 오전 9시30분, 수요일 오전 10시30분, 오후 7시30분
- 공소미사 : 간중리공소 오후 3시
- 지난주 불헌금 : 687,406원

(노송동)

전화 ⑦7032번

주임 신부 김성원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 주일학교 춘계소풍 : 9일(일) 본당에서 오전 9시출발(장소 소양) 준비물-미사도구 및 도시락
- 대학생회 발족 : 14일(금) 저녁 8시, 본당에서 남·여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어린이 영세식 : 4일(화) 오전 10시30분 대부모님을 모시고 나오세요
- 성모성월 기도 : 매일 저녁미사 후
- 금주의 성경읽기 : 역사서의 여호수아 전체
- 예비자 교리 : 일반팀-매주(일) 공식미사 후, 남자팀-매주(목) 저녁미사후, 학생-매주(토) 오후4시
- 수녀님들 배소라 섬서강의 : 매주(월) 오후 2시~4시
- 젠 모임 : 매주(토) 오후 5시
- 지난주 불헌금 : 304,8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안철문
보좌 신부 서현열
사도 회장 양상열

- 사도회 월례회의 : 오늘 공식미사 후 구역장, 반장, 공소회장, 임원님들 꼭 참석 바람
- 변경된 미사시간 안내 : 주일-오전 5시30분, 8시30분,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 평일 월·수·목-오전 5시30분, 금요일-10시, 화·토-저녁 8시
- 반석회 월례회의 : 다음주에 있으니 빠지지 마세요
- 장례예절 교육이 평형 주최로 센터에서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참석하시고 레지오 단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난주 불헌금 : 408,290원

(복자)

전화 ⑤238번

주임 신부 김중택
보좌 신부 조성호
사도 회장 조성호

- 오늘은 성소주일 : 많은 젊은이들이 성소에 입하도록 기도와 협조합니다 ※ 특별헌금에 정성을 다합니다
- 중·고학생회 춘계 소풍 : 일시-5월 오전 8시 본당 집합, 장소-구이저수지, 회비-500원, 준비물-도시락 ※ 인솔책임자-박상기 선교분과 위원장
- 성모상에 꽃·화분·초를 바칩시다
- 불헌금 미수가 없도록 완납하여 주세요
- 중·고학생 미사 : 주일 오전 9시, 미사후 학생교리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미사에 꼭 나오세요 ※ 지도-조성호 회장님
- 성우회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차주 전례 : 해설-황만금, 독서-①조성호 ②송영자
- 지난주 불헌금 : 388,065원

(서학동)

전화 ③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활인구

- 5월 3일 본당 신부님 사제서품 6주기를 맞아 영육간의 건강을 빌니다
-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 예비자교리 : 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
- 반장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우리아 모임 : 다음주 오후 2시 회의실
- 유아세례 : 매월 첫째 주일 공식미사 전(9시30분)
-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 ①김낙균 ②박경복
- 지난주 불헌금 : 243,260원 교무금 : 165,000원

(송정미)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주·유 ③9567 사도 회장 김수걸

- 사도회 월례회 : 5월 2일 공식미사 후
- 오늘은 성소주일 : 특별헌금 있습니다
- 5월은 성모성월 입니다, 뜻있게 지냅니다 매 미사끝에 성모성월 기도 바랍니다
- 예비자 교리안내 : 매주 공식미사 후, 수요일 밤 8시 ※ 예비자 인도에 노력합니다
- 차주전례담당 : 해설-홍성조 독서-이원일·신중현, 기도-이규철
- 미사참례자 안내 : 김정숙·신순영·김 유리안나·문영희·권춘자·최옥주
- 지난주 불헌금 : 488,470원

(전동)

신부 ⑥6208
사무 ③3222번
주녀 ⑧8347

주임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이준중
사도 회장 이준중

- 사도회 : 공식미사 후
- 유아세례 : 8시30분 미사후
- 축! 영명(보좌신부님) : 공식미사 후 축하식
- 주일학교 어머니회 : 5월 8일 오전 11시 강당
- 수녀원 준공식 : 5월 9일 공식미사 후
- 중·고생 성소주일 신학교 발문 : 5월 2일
- 신축기금 : 유종현·김중오·방준철(각 10만원), 채성룡·김공선·조미영·조풍기(각 5만원) ※ 신청자 여러분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다음주 전례담당 : 아침미사 : 해설-이주철, 독서-①이현재 ②김동연 공식미사 : 해설-이준영, 독서-①장금태 ②이영태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경양수 ②김동수
- 지난주 불헌금 : 550,06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활희상

- 사도회 월례회 : 오늘 저녁미사 후에 있습니다 대상자-회장단·교문·감사단·각 분과위원장
- 우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 5월은 성모성월 : 뜻있게 지냅니다
- 성모회 월례회 : 5월 7일(첫 금요일)에 있습니다
- 본당 주보축일(5월 13일) : 저녁미사와 성모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 레지오 옥외행사 : 다음주 10시 미사후 있습니다 레지오 전단원과 협조단원 참석 요망 (도시락 지참)
- 성소지망자 신청 : 관심있는 남자 고등학교생 이상은 5월 6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바람, 5월 16일, 23일 신학교 전학 예정 (교통비·식대 교구 부담)
- 지난주 불헌금 : 181,840원 교무금 : 274,000원